

# “책 대출 편해요”...전주 도서관 ‘음書감書’ 호응

### 11개 시립도서관 소장자료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률 급증 타관반납 서비스도 인기...시민 독서열 향상에 크게 기여할 듯

전주시가 시민의 도서 대출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호대차 도서배달 서비스인 ‘음書(서)감書(서)’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서감서는 시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이 없으면 11개 시립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 가능한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전주 완산도서관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도서가 1만1660권으로, 1일 평균 58권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상호대차로 이용된 권수는 1524권으로, 처음 시행된 3월 이용 권수 312권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대출한 도서를 전주시립 어느 도서관에나 반납할 수 있는 타관 반납 서비스도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35만 3150권, 1일 평균 1766권이 타관반납 서비스로 이용됐다.

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시립 또는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편리하게 책을 대출·반납할 수 있어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서비스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상호대차 및 타관 반납 서비스는 전주시 ‘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호대차 신청의 경우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에서 원하는 도서 검색 후 신청(1인 3권 이내)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시간 내 방문 시 2일 내(주말, 휴관일 제외) 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읍서감서 서비스가 전주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전주시 독서를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가 시민의 도서 대출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호대차 도서배달 서비스 ‘음書(서)감書(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열람실.

## 초등생 대상 겨울방학 독서·체험 기회 제공

###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과학창의교실 등 특강 운영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방학과 함께 도서관을 찾는 많은 아이들에게 독서와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중 ‘과학창의교실(19-20일, 오전 10-12시)’은 자외선 LED칩을 살균기 만들기에 10명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 관련 도서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스칸디아모스(순록이끼)로 공기정화 식물 만들기(12-13일, 오전 10-12시) 프로그램을 저학년 10명과 고학년 10명이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평생의 친구로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인문학 강의 등을 강화해 전국에서 독서열이 가장 높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고창군립성호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전북도, 7개 시·군 102곳 1572억원 투입 새만금유역 하수도 인프라 대대적 확충

### 하수관로 496km 정비 등

전북도가 새만금유역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전주 등 7개 시·군 102개소에 총 157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19년도에 하수관로 확충 및 정비 24개소 530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5개소 337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6개소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수관로는 7개 시·군에 496km를 확충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은 전주 등 4개 시·군에 6개소를(5만400㎡/일) 증설할 계획이며, 또한 농어촌마을하수도는 35개소(4090㎡/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생활하수 적정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확충 및 정비 등 전폭적 투자를 통해 2010년 대비 하수도 보급률 11.5%포인트, 하수관로 보급률이 9.6%포인트 증가해 전북도의 열악한 하수도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유역 물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에 환경기초시설 7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 등 6개 사업에 올해보다 526억원이 증가한 2098억원의 예산(잠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시, 마을경로당 93곳서 심폐소생술 순회 교육

### 심 정지 돌연사 취약 4926명 자동 제세동기 사용 요령 등

정읍시가 심 정지 돌연사 취약지역 93개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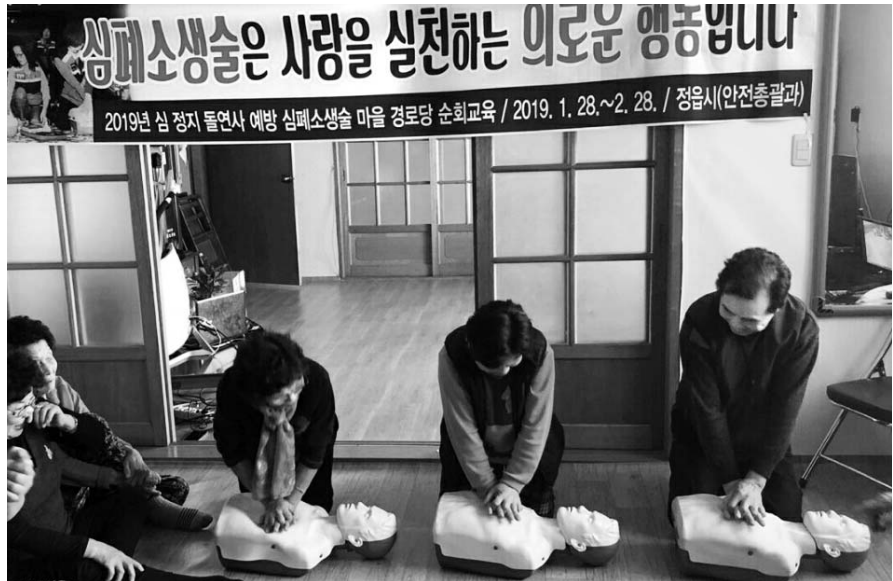
정읍시에 따르면 심 정지 사고 시 골든 타임(4분) 내 119구급대가 도착이 어려운 93개 마을의 주민 4926명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이달 28일까지 운영된다. 교육은 설날 전·후와 설 연휴기간이 마무리 되는 이달 11일부터 복면장재경로당을 시작으로 심폐소생술 순회교육 한다.

교육은 평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심폐소생술 이론과 체험실습, 자동 제세동기 사용요령 등을 교육한다.

시는 교육을 통해 심혈관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을 예방 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난·재해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 가정의 일상에서 심 정지 사고를 목격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후유증 없이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며 “부득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심폐소생술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심 정지 돌연사 예방 순회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한편 시가 권장하는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예방수칙은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술은 한두 잔 이내로 즐긴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등 7가지다.

중공 후에는 놀이활동가 등 관리 인력이 배치된다. 민선시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맘껏 숲, 맘껏 하우스가 아동의 놀 권리를 지역에 전파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주 덕진공원에

### 무지개다리 등 아동 친화공간 ‘맘껏 숲, 맘껏 하우스’ 조성

전주시의 대표 휴식처인 덕진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이 만들어진다.

전주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주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오는 9월까지 덕진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인 ‘맘껏 숲, 맘껏 하우스’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9억7000만원이 투입될 아동 친화 공간에는 무지개다리와 다목적마당, 은행나무 플랫폼 등이 들어선다.

시는 경관심화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다음 달 공사에 착수한다.

준공 후에는 놀이활동가 등 관리 인력이 배치된다.

민선시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맘껏 숲, 맘껏 하우스가 아동의 놀 권리를 지역에 전파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성당면 교도소세트장 시설보강 관광객 유치

익산시가 성당면 교도소세트장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익산시는 세트장 내 바닥을 보강하고 연결통로의 개선, 화장실 확충 등을 통해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과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관광객 전용 망루, 소법정, 식당, 주차장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시설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광객의 불거리와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세트장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포토존, 휴게시설,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와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건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휴무없이 세트장을 개방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3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익산 교도소세트장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이야기가 존재하며 감동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한국영화의 중요한 장소다”며 “시설보강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제공으로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고 관광객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덕남동 임야, 여수 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전남 여주시 봉강동343-1번지의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3605-5000